

# KWDI

## 해외통신

2021년 8월 (2021.8.1 ~ 8.31)



### 스페인 SPAIN



#### 성범죄 적용 및 처벌 강화 법안 승인

작성자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박사과정

- 2021년 7월 초, 스페인 정부는 성폭력에 관한 정의를 개정하고 피해자 지원 및 성범죄 예방을 다각도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승인한 법은 기존의 성범죄를 보다 엄격한 방향으로 규제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동 법안은 의회의 최종 논의 및 투표를 거쳐야 하며, 2021년 연말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 현재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총리가 이끄는 스페인 정부는 정책 개발 및 이행에 있어 성평등, 여성의 권익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산체스 총리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여성에게 더욱 안전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2016년 다섯 명의 남성이 18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여 스페인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고등법원에서는 성폭행이라 보지 않고 훨씬 경미한 수준의 성추행(sexual abuse)이라고 해당 사건을 해석했으며, 그에 따라 9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같은 판결 근거는 피고인들이 당시 상황을 녹화했는데 판사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에 따라 성행위에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한 데서 비롯됐다. 판결이 발표된 이후 사회적으로 큰 공분이 일었으며 스페인 곳곳에서 성폭행을 재정의하고 관련 처벌 법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렸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송부되었으며, 대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고등법원의 원심 9년형에서 형량을 늘려 15년형, 피해자에게 총 10만 유로(한화 약 1억 3천만원)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참고자료

- AP(2021.07.06.), "Spanish govt endorses clearer, tougher law on sexual consent", <https://apnews.com/article/europe-sports-government-and-politics-e49431031dc10f279809a9d0ae4fff03> (접속일: 2021.08.20.)
- El Pais(2021.07.07.), "Spain approves sweeping sexual violence protection bill: "We don't want any woman to feel alone", <https://english.elpais.com/spain/2021-07-07/spain-approves-sweeping-sexual-violence-protection-bill-we-dont-want-any-woman-to-feel-alone.html> (접속일: 2021.08.20.)
- France 24(2021.07.06.), "Only yes is yes: Spain moves to tighten rape law",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10706-only-yes-is-yes-spain-moves-to-tighten-rape-law> (접속일: 2021.08.20.)

현 스페인 형법 제 178조는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해 타인의 성적 자유에 반하는 행위를 성추행(sexual assault)으로 보고 1-5년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 179조에서 강간(rape)은 6-12년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부 특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은 12-15년형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명백하게 비인륜적 폭행이나 위협, 2인 이상의 가해 행위, 장애나 질병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직장이나 학교 등과 같은 기관에서 성적 접촉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추행 행위의 경우 형법 제 184조에서 3-5개월 징역형이나 벌금형, 특히 고용이나 업무상의 수직관계를 이용한 성추행은 5-7개월이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페인의 기존 형법에서 이미 합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성추행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형법에서 '합의'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부분이 없다. 특히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가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강간죄가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폭력이나 위협을 겪었고 저항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승인한 법안은 성관계에서 합의가 관건이며, 개인의 의지를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했을 때에 한해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어로는 "solo sí es sí (only yes means yes)," 즉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에만 진정한 합의이며, 합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승인된 이후 이레네 몬테로(Irene Montero) 평등부 장관(Equality Minister)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새 법안에서는 피해자를 위주로 사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일보 하는 법이 될 것이며, 피해 당시 침묵하거나 수동적이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명백한 합의 없이 이뤄지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규정한다는 내용 이외에도 성범죄 관련 규정 범위가 한층 확대되었다. 이번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성희롱하는 캣콜링(catcalling), 스토킹, 강제 결혼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규정했다. 공공장소 성추행 범죄의 경우 벌금, 가택연금, 사회봉사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24시간 성추행 피해 신고전화 서비스 운영,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쉼터 운영 등의 조치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현재 스페인에서는 정부의 100%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젠더기반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무료 24시간 핫라인 전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핫라인은 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요령 안내, 상담 및 유관기관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성추행 피해 전담 신고 및 상담 서비스 라인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 중 최저임금 보다 적은 소득을 벌던 피해자가 실직하는 경우에는 약 6개월 정도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가 있거나 돌봐야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제공하는 제도도 포함되었다.

- Ministerio de Justicia (2013). "Criminal Code", [https://www.legislationline.org/download/id/6443/file/Spain\\_CC\\_am2013\\_en.pdf](https://www.legislationline.org/download/id/6443/file/Spain_CC_am2013_en.pdf) (접속일: 2021.08.20.)
- NPR (2019.06.21.), "Spain's Supreme Court Reverses Earlier Decision, Convicts 'Wolf Pack' Of Rape", <https://www.npr.org/2019/06/21/734843639/spains-supreme-court-reverses-earlier-decision-convicts-wolf-pack-of-rape?t=1629063035841> (접속일: 2021.08.20.)
- Reuters (2020.01.21.), "Spain's new government spars with right on region's sex education veto", <https://www.reuters.com/article/uk-spain-rights-education-idUKKBN1ZK241> (접속일: 2021.08.20.)
- Reuters (2021.07.06), "Spain says non-consensual sex is rape, toughens sexual violence laws",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spain-says-non-consensual-sex-is-rape-toughens-sexual-violence-laws-2021-07-06/> (접속일: 2021.08.20.)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모든 수준에서 학년별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지난 몇 년 간 스페인에서는 성적 다양성에 관한 교육이 큰 화두였다. 작년 초, 스페인 자치주 중 하나인 무르시아(Murcia)에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 예를 들어 성적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수업시간에는 부모가 원하면 본인의 자녀를 수업을 듣지 않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법안을 만들기도 했다. 이에 중앙정부 측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났고, 무르시아 주민 수천 명이 집결하여 대규모 거리행진 시위를 개최하는 사태도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작년 연말, 스페인 의회는 새로 개정한 교육법을 가결시켰으며 6세 이상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교육 의무화, 동 법안에서는 지방 정부의 자율적인 교육 결정 및 운영권을 부여하면서도 교육제도에서 부모의 개입 축소화하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했다. 당시 보수주의 성향의 정당, 학부모 연합, 교사연합, 종교 단체 등 일각에서는 기존의 도덕적, 사회 규범 가치를 주장하면서 성적, 성적 정체성에 관한 교육 의무화 도입을 반대했다.

이번에 정부가 승인한 법안은 성폭행에 관한 규정에 있어 합의 여부를 명백하게 중점에 두고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데다, 성범죄 피해 지원 서비스 및 예방 관련 정책을 보다 폭넓게 마련했다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직 의회에서 최종 논의 및 투표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본 법안의 가결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독일 GERMANY



### 성평등한 언어 사용 논의 현황

채혜원 독일통신원

2021년 7월 13일,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기내 인사말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신사숙녀 여러분(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표현을 없앴다고 발표했다. 독일 매체 도이치벨레(DW)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루프트한자는 승객에게 건네는 인사말을 시작할 때 '신사 숙녀 여러분' 대신 '탑승을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또는 오후/저녁)입니다'는 문장으로 대체한다. 승객 호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이며, 정해지는 대로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오스트리아항공, 스위스항공, 유로윙스를 포함하여 루프트한자 그룹이 운영하는 모든 항공사에 적용된다.

유럽성평등기구(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는 젠더 중립적 언어에 관해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남녀에 관한 언급 없이 '사람'을 고려하는 언어"로 정의한다. 유럽의회에서는 2018년, 젠더중립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편견, 차별 또는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 선택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참고자료

- DW(2021.07.13), "Lufthansa will no longer address you as 'ladies and gentlemen'", <https://www.dw.com/en/lufthansa-will-no-longer-address-you-as-ladies-and-gentlemen/a-58252757> (접속일: 2021.07.22.)
- Geschlechtergerechte Schreibung(2021.03.16.), "Geschlechtergerechte Schreibung" <https://www.rechtschreibrat.com/geschlechtergerechte-schreibung-empfehlungen-vom-26-03-2021> (접속일: 2021.07.29.)

-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젠더 중립 단어 사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독일어는 한국과 달리 모든 명사가 남성, 여성, 중성으로 나뉜다. 명사 외에 관사에도 성이 존재한다. 기본값은 남성형이다. 예를 들어 남성 의사는 'Arzt'이며 여성 의사는 'Ärztin'으로 표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사'를 칭하는 단어를 쓸 때 'Arzt'를 많이 사용한다.
- 독일 정부 차원에서 성평등언어 또는 젠더중립언어 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이다. 독일 주정부 중에서는 처음으로 하노버시가 2019년 1월 18일, '성평등한 행정용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이에 따라 하노버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행정 서신, 예를 들어 이메일과 서신, 양식과 법률 텍스트, 인쇄물과 전단지, 보도자료 등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언어를 사용한다. 가이드라인은 하노버시의 여성 및 성평등국, 젠더다양성위원회, 커뮤니케이션 부서, 독일 쉘레스비히-홀슈타인주에 있는 플렌스부르크시의 성평등담당관 등의 지원으로 개발되었다. 당시 하노버 시장은 "다양성은 우리의 강점이며, 새로운 언어 가이드라인 마련은 성별 구분을 떠나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회로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하노버시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기본 규칙은 가능한 한 성별/젠더 구분 없이 포괄적인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남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Herr(헤어)'나 여성을 지칭할 때 쓰는 'Frau(프라우)'처럼 특정 성을 지칭하는 표현 사용을 배제한다. 남녀로 이뤄진 부부 관계, 예를 들어 쉘츠 부부(Herr und Frau Schulz)란 형식 대신에는 아니타 쉘츠 씨와 콘라드 쉘츠씨(Anita Schulz und Konrad Schulz)처럼 전체 이름을 적을 것을 권장한다. 또한 아이를 포함한 가족 전체를 부를 때에는 부부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쉘츠 가족(Familie Schulz)으로 쓴다.
- 이어 가이드라인은 정해진 수신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나 이름을 모르는 담당자 등에게 문서나 편지를 쓸 때 사용하는 '친애하는 남성 또는 여성 00에게(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대신 성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인사말, 'Guten Tag(안녕하세요)' 또는 'Liebe Gäste(친애하는 손님)' 사용을 권한다.
- 단어 구조를 바꿔 성별이 표기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만들었다. '여성 심리학자의 조언(Rat der Psychologin)' 대신 '심리학적 조언(psychologischer Rat)', 남성형을 기본으로 한 '프로젝트 참가자(die Teilnehmer des Projektes)' 대신 중성단어를 사용한 '프로젝트팀(das Projektteam)' 등이 이에 속한다.
- 하노버시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젠더포괄적인 언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별표(\*, 독일에서는 젠더 별표라 부른다) 사용을 권한다. 남성과 여성 어미 사이에 별표(\*) 표기를 해 성별 구분을 없애는 방법이다. 남성 엔지니어(Der Ingenieur)나 여성 엔지니어(die Ingenieurin) 대신 성별 구분이 없는 엔지니어(Ingenieur\*in)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친애하는 여성 동료와 남성 동료들에게(Liebe Kolleginnen und Kollegen)' 대신 '친애하는 동료들에게(Liebe Kolleg\*innen)'로 쓰는 방법도 여기에 해당한다.

- DW(2020.08.03.), "German language association wants gender asterisk to be scrapped", <https://www.dw.com/en/grammar-gender-asterisk/a-54554927> (접속일: 2021.07.22.)
- Landeshauptstadt Hannover, "Neue Regelung für geschlechtergerechte Sprache", <https://www.hannover.de/Leben-in-der-Region-Hannover/Verwaltungs-Kommunen/Die-Verwaltung-der-Landeshauptstadt-Hannover/Gleichstellungsbeauftragte/C2%ADtrage-der-Landeshauptstadt-Hannover/Aktuelles/Neue-Regelung-f%C3%BCr-geschlechtergerechte-Sprache> (접속일: 2021.07.28.)
- Verein Deutsche Sprache(2019.3.6.), "Der Aufruf und seine Erstunterzeichner", <https://vds-ev.de/gegenwartsdeutsch/endersprache/endersprache-unterschriften/schluss-mit-dem-gender-unfug/#> (접속일: 2021.07.28.)

- 이 방법은 최근 몇 년간 독일 언론에서도 시도한 표기 방법이다. 남성 경찰을 칭하는 ‘Polizist’와 여성 경찰 ‘Polizistin’의 어미 사이에 별표(\*)를 넣어 ‘경찰(Polizist\*in)’로 쓰는 방법이다. ‘동료(Kolleg\*in)’나 ‘은퇴 후 연금생활자(Rentner\*in)’도 같은 방법으로 쓰고 있는 단어다.
- 독일 내에서는 이러한 표기법 사용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젠더 중립적 단어 사용은 중요하나, 문법 변경으로 인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 경찰을 뜻하는 ‘Polizistin’과 젠더 중립성을 넣어 남성과 여성 경찰 모두를 아우르는 ‘Polizist\*in’, 이 두 단어는 글로 쓸 때는 별표(\*)를 식별할 수 있으나 발음은 ‘폴리치스틴’으로 같아 말하거나 들을 때 구분이 어렵다.
- 이를 두고 독일 라디오방송국 ‘Nova’에서는 별표(\*)를 넣은 젠더중립 단어 사용을 두고 청취자들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언어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변화해왔고 자주 사용할수록 습관화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사회가 변하면 언어도 변하며 그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명확성이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 일부 언어학자들은 젠더 중립언어 사용에 대해 회의적이다. 약 100명의 작가 및 학자 등으로 구성된 독일언어협회(Verein Deutsche Sprache e.V.)는 단어 중간에 별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독일어 문법과 철자 규칙에 맞지 않으므로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원칙적으로 차별 없는 언어 사용을 지지하지만 별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언어적 관점에서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 다른 전문가들은 가부장적 사고방식 제거와 언어 평등을 이뤄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성별을 구분하는 독일어가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지속시키고 남자 또는 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이들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사회학자 알렉산드라 셀레(빌레펠트 대학)는 도이치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루프트한자 그룹 선택과 같은 변화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성인지적 감수성이 있는 언어 사용과 같은 상징적 조치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이나 조직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독일어표기법위원회’는 독일 전역에서 많은 기관이 언어 평등을 이뤄내기 위해 젠더 별표(\*) 사용, 가능한 남성형을 기본으로 쓰지 않기 등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표기법이 공식 맞춤법 사용에 관한 논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어 2022년에 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